



이슈와 제안 군법당 이전

군법당 어디로?

7월 말 서울 특수전사령부 군법당 인 호국사자사에서 여름불교학교가 열렸다. 이날 여름불교학교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모였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군포교의 성공사제로 꼽히는 호국사자사는 일반사찰인 불광사에 이어 지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도가 등록돼 있다. 이 법당의 일요일에는 참석하는 평균 민간인 신도 수가 장병들의 수를 훌쩍 넘는다. “집 앞이라 호국사자사에 매주 부모님과 함께 와요.”(우승현·14)

이날 여름불교학교에 참석한 아이들 10명 중 대부분은 군법당에 오게 된 계기가 가깝고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심 사찰이 부족한 불교계 상황에서 도시 내부에 군법당이 일선 포교당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전사는 2012년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 계획이 추진 중이다. 지역 군법당이 부대 이전으로 사라지면 이 신도들은 어디로 갈까?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7월 23일 출범 6주년을 맞았다. 군종특별교구가 출범하며 군포교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군법당, 군법사가 있는 교구라는 편제 하에 조직화가 됐고 종단의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400여 법당이 신축, 개보수 됐다. 현재 군포교의 숙원 사업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 불사에도 40여 억원이 넘는 성원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과 합병 등에 따른 군내 많은 부대 군법당이 지어진 후에도 법사 파송이 원활치 못해 운영에 애로점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신도조직이 활성화된 도심지의 대규모 군법당의 부대 이전 이후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부대가 이전하면 부지는 매각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종교시설 등은 별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 토지 위주로 감정 평가 후 매각절차를 밟는다.

국방부 시설기획관실은 “군법당을 비롯한 종교시설은 기부채납인 경우가 많다. 기부채납 후에는 국유재산”이라며 “현재 주요도심지에 위치한 부대부지는 관제법상 국유재산권처분법으로 공공이익의 목적에 의해 대부분 지자체와 수익계약을 실시하는 상환”이라고 말했다.

난개발을 막고 공원 등 민간 수요에 맞춰 부지를 활용한다는 정책 하에서다.

이러한 정책으로 도심지 법당의

못했다.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입구에 자리한 충정사는 신도들의 노력으로 사찰로의 사격을 유지한 경우다.

1980년 수도방위사령부 군법당으로 세워진 충정사는 1991년 수도방위사령부가 남현동으로 이전할 때 그대로 남았다. 이후 서울시는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충정사를 보존했으며 사찰부지가 남산1호 터널 직진화 사업에 포함돼 철거가 불가피해지자 예비역장성불자연합회가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했었다. 이후 임대료 연체 등의 문제로 연합회에서 몇 종단에 사찰 인수 등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군법당 국유재산... 개인 원력에 기대 종단 관심 지원 필요하지만 대안 없어

로서 기능을 상실했던 경우가 공군사관학교 군법당이었던 보라매법당(성무호국사)이다.

1971년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의 신령도량으로 설립된 공군 최초 군법당인 보라매법당은 1986년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하자 서울시에서 인수,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등 시련을 겪었다. 1996년 공군복지단이 다시 군종교시설로 인수했지만 법당은 오랜 세월 방치된 상태였다. 이후 군종교구가 출범하며 교구와 주지 법사들의 노력으로 2004년 중창불사가 완료된 보라매법당은 현재 5000가구가 넘는 신도들의 도량으로 활성화됐다. 보라매법당의 경우와 같이 도심지 군법당의 경우 대형 사찰로의 성장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그동안 종단 측은 인수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남산골 한옥마을’이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필수 관광코스로 인기를 모으는 상황에서 포교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이 충분했지만 종단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성불회는 5억여 원의 임대료를 완납했으며, 인제 영시암 회주 도은 스님이 주지로 매우 활발한 신령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과 신도단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자금과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한 인수과 정상 임대형식을 띠고 포교라는 본연의 역할에 나서기에 벽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가와 임대료 상승 등을 감안해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면으로 계속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참나’ 찾아 떠나는 여행 전주 ‘참좋은 우리절’ (주지 회일)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불교문화체험학교를 개최했다. ‘참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7월 30일~8월 2일까지 열린 불교문화체험학교에서는 어린이 자비명상, 열반체험 등을 통해서 참다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애니메이션 시청, 경전 독송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시간과 발우공양, 탈 만들기, 연등 만들기, 윤력 등 사찰문화 체험과 풍물놀이, 솟대 만들기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 포크댄스, 레크레이션, 실내 운동회 등 재미있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유익하고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수 스님 추모 학술대회 열려 “개신교는 불교 편취 멈춰라” 조계사신도회 신도총회서 강력 대응 결의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문수 스님을 추모하고 소신공양의 의미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 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2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수 스님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자로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소신공양의 의미’), 이도훈 한양대 교수(‘4대강 사업의 본질, 무엇이 문제인가’),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사회불평등의 정책적 요인’),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부정부패와 시민의 자율적 개입’)이 참석한다. 토론자로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후 스님과 유정길 예교보다 공동대표, 최연 불교문화연구원장, 임은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개신교계의 불교 편취 근절을 위해 조계사신도회가 발 벗고 나섰다. 조계사신도회(회장 이연숙)는 8월 1일 제1차 신도총회를 열고 개신교에의 불교 편취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계사 신도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7월 중순 각종 일간지에 게재한 ‘종교개혁의 국민행세로 종단 운영을 중단하라’는 광고를 불교 편취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조계사 신도들은 불교 편취 및 종교간 갈등 조장 행위 중단과 전통문화에 대한 정당한 예산집행 축소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개신교계가 불교계의 문화재보수 및 템플스테이 국고지원예산을 국민 행사 운운하며 지적한 것에 대해 조계사 신도들은 “교과부가 지방교육청을 통해 ‘재정결합보조’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68%가 개신교계 종교사학에 편중되고 있

동서 최정 아승도회청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집중수련 5일 참선수행체험 **산사의 다이어트**

참선 인성대전환 **단식** 다이어트 1일 3kg 요요현상 제로 국민단식

8월12일, 9월19일 매일1회 4억5천 원의 단식 체험 기회

새 연재-한국불교 승려열전, 인물로 본 일본불교 15면

석길암 한국불교 승려열전 인물로 본 일본불교

원영상 한국불교 승려열전 인물로 본 일본불교

여름휴가로 이번 호 24면 발행합니다

- 12 선지식을 찾아서-문인 스님
- 3 유신론 100년-만해의 수행
- 6 21세기와 만해-만해
- 10 기획-종교와 시민사회
- 14 기획-한나무 교사연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예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회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수명보장	2146원	429원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

찬덕불교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광고 : 찬덕불교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